

백 양 중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우리정부의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남녀평등 추진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7월1일에서 7월10일까지 여성주간으로 선포하고 기념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소득의 제8회 여성주간은 한미자유 무역협정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간으로 주제도 '양성평등!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다. 7월4일 서울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노무현대통령 내외분이 지체 없이 참석하고 양성평등 사회실현에 헌신하는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하는 대통령령의 치사가 있었다.

대통령은 치사에서 다음달 앞을 8.15 기념행사에서 새로운 국제무대로서 공화국 제70주기로 되어 가는 '20년 관례 시대'를 위한 '국가개조론' 구상에서 여성의 참여와 기여를 '인생관 재관'의 핵심축으로 삼았다고 선언하여 여성들이 백수강태를 벗어나 있다.

그러한 선언의 배경에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 참모한 한국장교 입단 식과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그동안 남성만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사관학교에서 신임하는 여성의 참여와 비중이 분과 있으며 여성 5명을 이 수석으로 종업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변화를 시도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개조론 제고에 함께하며 실용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겠다고 외치는 것도 여성들에게 크게 고무적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기 위해 현재 48%이상을 인 여성이 경제활동 인구비율을 55%까지 끌어올려서 기술혁신과 시장개척, 문화혁신 그리고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과 지방화 전략을 꾸준히 실행해낼 뜻을 밝히므로 여성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다.

'국민총합내 생산액'의 70%를 주로 국민소득으로 선포하고 있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체결분야의 여성참여 제고하여 OECD가입국가들 '여성 의존도'가 최하위인 것을 모른다. 이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 대통령은 4.8%의 5급 이상 여성 고위 공직에 비중을 30%이내에 10% 수준까지 늘려갈 것과 여성들이 30%의 비중을 비롯한 국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과 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 하였다.

그리고 경제학 분야에서의 여성진출도 이미 전례 없던 이만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입지율도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사회 전반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70%의 문화를 강화시켜서 우리나라의 부를 같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문화를 없애기에는 앞장 서 ①

기대는 확실히 표명하였다.

이러한 여학생들은 중반 여학생간의 대항쟁의 고조되는 추세를 통해 21세기 양성평등의 시대를 앞당기는 일을 함께 전열하게 되었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만들기에 있어 여성의 참여와 기여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데 힘이 되었다.

이러한 교육적인 분위기에 비추어 경제발전의 주역인 기업체에서도 불이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를 보면, 최근 동양일보에 연재되었던 삼성그룹의 이근희 회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보면 이 회장이 여학생인력을 특별히 중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성을 배려해주고 이인 기부의 성격은 즉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서 기부의 선례를 기성도를 감리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여학생인력을 양성하면 경쟁력을 높게 된다' '여학생으로 재능을 배우어야 한다' '여학생인력 활용은 제주의 중요한 축중 하나이다'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에 참여해야 한다' '모든 여자의 위대함은 그날의 여성과 같은, 꿈꾸는 등으로 여성이 가진 대담한 강점이다' '21세기는 여성과 시대이다' '변혁의 도는 정보기술시대에서 성공한 여성들이 드러날 것도 여성과 창의적이고 여성이 특히 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된다' '여학생인력을 편견 없이 배려해야 한다' '입사나 승진시 분야를 넓혀주는 것도 능력 있는 여성들을 리얼하게 입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획기적인 인사의 전환이라고 했다.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공은 여성을 자신에게 드려왔다. 대항쟁의 장벽을 극복해 주었던 기여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인력으로서의 노력에 이르기까지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여성들이 직면한 도전이다.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경쟁력, 인력제고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해부하는 기리라는 데서 상황을 주체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는 언급했듯이 70년대 국민소득 1000불을 목표로 삼고 생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리라 하거나 강조하는 것이다.

양성평등의 시대를 앞당기는 시대의 신호는 분명하다. 여학생들 21세기의 비전과 함께 행동여회에 대해 걸리는 답답함을 시일을 어떻게 풀 것인가.